

최근 캄보디아의 고성장 배경과 시사점

박나리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nrpark@kiep.go.kr, Tel: 3460-1096)

차 례 ●●●

1. 최근 경제 현황
2. 고성장의 주요 배경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2년 캄보디아는 7.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나타냄.
 - 2012년 캄보디아의 CPI 상승률은 2.9%로 안정되었으며, 미달러 대비 환율은 4,033리엘(Riel)로 2011년에 이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 최근 고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 한·중·일 중심의 외국인투자 증가 △ 섬유봉제업 주도의 제조업 성장 △ 주요 곡물의 생산성 향상 △ ASEAN 역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업 호황을 들 수 있음.
 - 2012년 대(對)캄보디아 외국인투자는 집행기준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7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승인기준 22억 8,000만 달러의 투자액 중 한·중·일 3국이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함.
 - 섬유봉제업은 최근 주변국의 임금인상에 따른 공장이전 증가, 캄보디아 섬유봉제수출의 대EU 무관세 적용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9% 성장함.
 - 2012년 농산물 생산량이 전년대비 4.9% 증가한 가운데 주요 작물인 쌀은 생산량 약 870만 톤, 수출량 18만 7,000톤을 기록함.
 - 캄보디아 관광업도 호황을 누려 전년대비 24.4% 증가한 358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였고, 특히 ASEAN 역내관광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임.
- ▶ 캄보디아는 2015년까지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선결과제가 남아 있음.
 -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농업 분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섬유봉제업의 파업사태 해결, 관광인프라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함.
- ▶ 캄보디아 경제의 고성장 기조에 따라 한국정부의 양자 및 다자 원조 활성화, 한국기업의 투자다각화가 촉구됨.
 - 2012년 12월 한국정부가 대캄보디아 중점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발표함에 따라 농업 등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주요 분야이자 한국의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양자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부동산 및 건설업 투자를 넘어 섬유봉제, 농업 등에 대한 다각화가 요구됨.

1. 최근 경제 현황

- 2012년 동남아 주요국들이 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캄보디아는 7.3%로 큰 폭으로 성장함.
- 2013년 4월 10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은 2012년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였으며,¹⁾ 이 중 캄보디아는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표 1 참고).

표 1. 2012년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비교

(단위: %)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실질 GDP 성장률	7.3	7.9	5.6	5.0	6.2	5.6	6.6	6.4

자료: ADB(201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 이에 앞서 2013년 2월 개최된 ‘2013 캄보디아 경제전망 컨퍼런스(2013 Cambodia Outlook Conference)’²⁾에서 정부 관료와 각계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그 배경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함.
- 이 컨퍼런스를 통해 캄보디아 경제재정부는 캄보디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2009년 0.1%에서 2012년 7.3%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함(표 2 참고).
- 또한 2012년 1인당 GDP는 990달러를 기록하며 1,000달러대에 근접함.
- 주요 경제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 비중이 2008년 32.8%에서 2012년 36.8%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 변화는 미미하며 2012년 서비스업 비중은 35.9%로 여전히 높음.
- 참석자들은 향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식량안보와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제시되었음.

1) ADB(2013), pp. 216-260.

2) 이 컨퍼런스는 ANZ Royal Bank와 캄보디아개발자원연구소(CDRI: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의 주최로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 제7차 컨퍼런스에는 훈센 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이 참석함. CDRI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무역, 경제개발, 빈곤감소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매해 캄보디아 경제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표 2. 캄보디아 GDP 및 주요 경제부문별 비중 추이(2008~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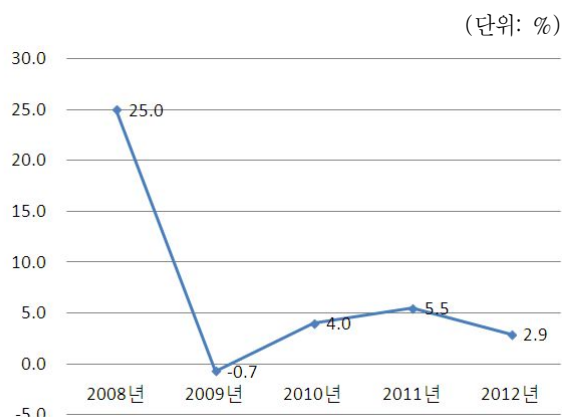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명목 GDP	백만 달러	10,337	10,400	11,634	12,937	14,231
1인당 GDP	달러	760	753	830	911	990
실질GDP성장률	%	6.7	0.1	6	7.1	7.3
- 농업	%	32.8	33.5	33.9	34.6	36.8
- 제조업	%	22.4	21.7	21.9	22.1	21.9
- 서비스업	%	38.8	38.8	38.3	37.5	35.9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 2012년 캄보디아의 CPI 상승률은 2.9%로 안정되었으며, 미달러 대비 환율은 2011년에 이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그림 1 및 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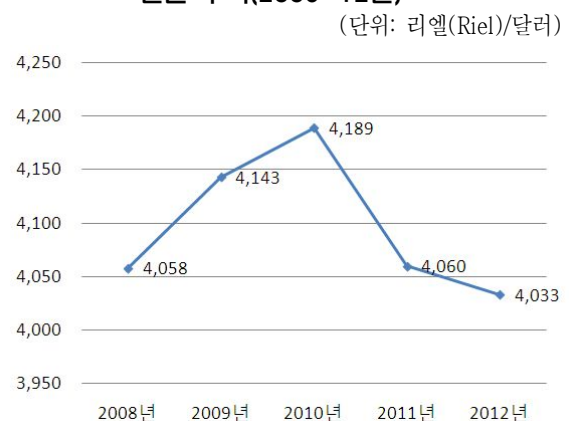
- 2008년 캄보디아의 CPI 상승률은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해 25.0%까지 급상승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정부 측은 2013년에도 4%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 o CPI의 43%를 차지하는 식량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2012년 CPI 상승률을 낮출 수 있었음.
- 2010년에 미달러 대비 환율이 4,189리엘까지 상승한 반면 2012년에는 4,033리엘을 기록했으며,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o 캄보디아는 국내시장에서 달러가 자유롭게 통용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투자위축에 따른 달러 유입감소 등으로 리엘화 가치가 하락하였으나 수출 및 투자가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4,000리엘대의 환율을 유지하게 됨.

그림 1. 캄보디아 CPI상승률 추이(2008~12년)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그림 2. 캄보디아의 미달러 대비 환율 추이(2008~12년)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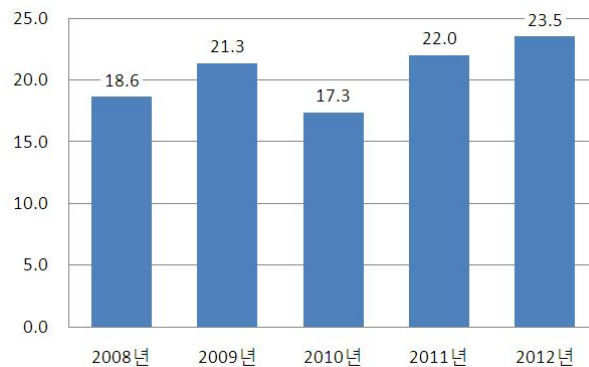
2. 고성장의 주요 배경

가. 한·중·일 중심의 외국인투자 증가

- 2012년 캄보디아 고성장의 주요 동력은 GDP 구성요소 중 총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3.5%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임(그림 3 참고).
- ADB에 따르면, GDP 기여도에서 총고정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투자 증가와 은행차입 증가를 그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음.³⁾

그림 3. 캄보디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변화 추이(2008~12년)

(단위: %)



주: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 2012년 외국인투자는 집행기준 전년대비 12.5% 증가한 7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약 22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대캄보디아 투자가 크게 증가함.
- 특히 한국은 전체 투자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캄보디아 투자액(승인 기준)이 2억 8,700만 달러로 전체 대비 12.5%의 비중을 나타냄.⁴⁾
 - o 2012년 한국은 주로 섬유봉제업, 장난감 및 전자부품, 타피오카 및 바이오에탄올 시설에 투자하였음.
-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은 전체 대비 약 33%의 투자액을 기록하며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함.
- 중국이 2억 6,3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섬유, 가구제조, 쌀가공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3) ADB(2013).

4) Phnom Penh Post(2013a).

- 3위를 차지한 일본은 최근 투자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쇼핑물 등 한국, 중국의 투자 분야와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고, 그 밖에 전자부품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주로 섬유봉제, 전자부품 등 저임금 활용과 농업 분야, 쇼핑물 같은 유통 분야 등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나. 섬유봉제업 주도의 제조업 성장

- 캄보디아 경제는 섬유봉제업이 6.9% 성장하고, 제조업 전반에서도 9.2%의 성장률을 기록함.
-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의 임금·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캄보디아로 섬유봉제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섬유봉제업이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섬유봉제업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 국가와 미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수출액이 약 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함.
- 2011년 1월 1일부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s of Preferences) 규정이 개정되어 EU는 캄보디아 섬유봉제품에 대한 기존 12%의 수입세를 전면 면제하였으며, 이에 2012년 해당 상품의 대EU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
- 따라서 캄보디아 섬유봉제업의 대EU 수출점유율은 23%에서 30%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61%에서 50%로 점유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 수입국임.

다. 주요 곡물의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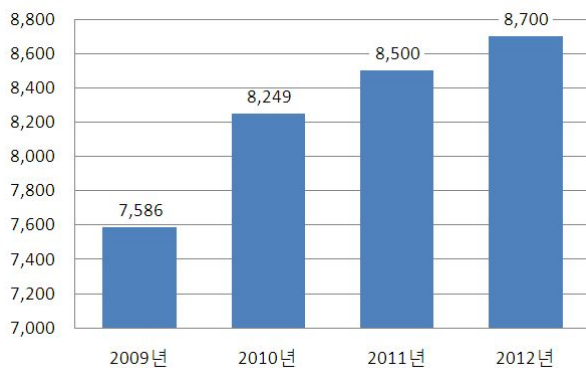
- 2012년 농산물 생산량이 4.9% 증가하는 등 농업 분야가 2011년 4.1% 성장한 데 이어 2012년에는 4.3%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크게 기여함.
- 2012년 반테이민체이(Banteay Meanchey)주 등 지방에 발생한 국지적 홍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주요 작물인 쌀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농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 2012년 캄보디아 쌀 생산량이 약 870만 톤을 기록한 가운데 쌀 수출량은 2010년 5만 1,000톤에서 2011년 17만 8,000톤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8만 7,000톤을 기록함(그림 4 및 그림 5 참고).
- 캄보디아는 EU의 EBA(Everything But Arms)⁵⁾ 대상국으로서 EU로의 쌀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대EU 수출량이 전체 쌀 수출량 대비 80% 이상을 차지함.

5) 2011년 EU가 개도국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 및 감면해주는 GSP 수혜대상국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GSP의 일환인 EBA(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쿼터 제한 철폐) 대상국인 캄보디아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됨.

- 또한 2013년 1~2월 사이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한 4만 9,815톤의 쌀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롭게 부상한 수출시장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들 수 있음.⁶⁾
- 캄보디아 농산물은 주변 ASEAN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생산량에 비해 아직 수출량은 낮은 수준임.

그림 4. 캄보디아 쌀 생산량 추이(2009~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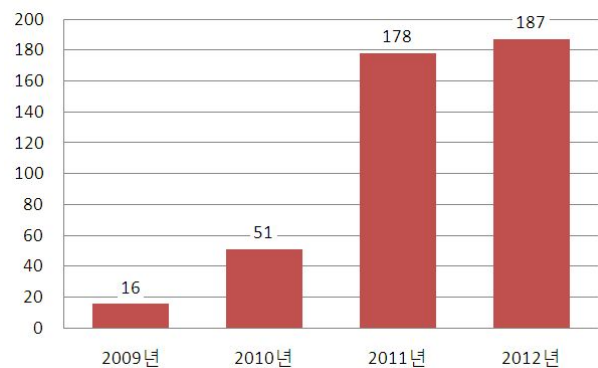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그림 5. 캄보디아 쌀 수출량 추이(2009~12년)

(단위: 천 톤)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라. ASEAN 역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업 호황

- 캄보디아 관광부는 2012년 대캄보디아 방문객수가 358만 명으로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5만 개의 일자리와 2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밝힘.
- 관광업의 빠른 성장은 주변 ASEAN 국가에서 온 관광객 급증이 그 주요 배경이며, 베트남 관광객이 전체 방문객수의 21%를 차지하며 최대수를 기록함.⁷⁾
 - 베트남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라오스의 방문객수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명이었으며, 태국에서도 전년대비 72.5% 증가한 약 20만 명이 캄보디아를 찾음.
- 역내관광 증가는 ASEAN 경제공동체 건설의 일환으로 비자 등 입국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역내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데 기인함.
- 또한 캄보디아와 주변국 간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는 양상에서도 역내관광 증가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2011년 후반 잉락 친나왓 총리 취임 이후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분쟁이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2012년 태국인 관광객수가 급증하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완화를 관광업 발전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음.⁸⁾

6) KOPIA 캄보디아센터(2013).

7) Phnom Penh Post(2013b).

8) 캄보디아 북부 프레이비히어 지역과 태국 동부 사시케트 지역 사이 국경에 위치한 힌두 사원을 두고 영유권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양국간 무력충돌 사태가 자주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국경분쟁으로 2000년대 후반 태국의 대캄보디아 관광객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1년 8월 훈센 총리와 친분을 유지해온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가 취임한 후 양국간 긴장관계가 완화됨.

- 주변국 외에도 2012년 중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5.1% 증가한 33만 4,000명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1/4분기에는 주요 관광지인 앙코르와트에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8만 7,104명이 방문하는 등 최근 중국이 캄보디아 관광업의 주요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3.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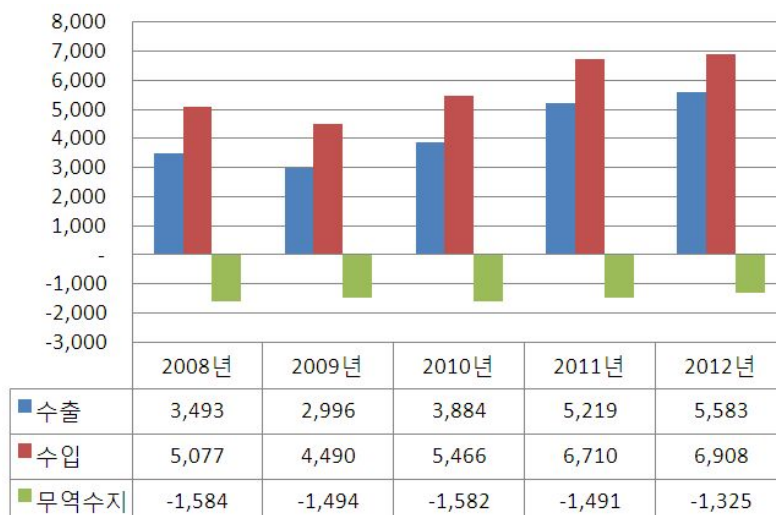
가. 전망과 과제

■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까지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⁹⁾

- 2013년 1인당 GDP가 1,080달러로 1,000달러대를 돌파하여 현재 저소득국(Low-income country)인 상황에서 2015~16년까지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힘.
- ADB는 2013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이 7.3%를 기록하고, 미국 및 유럽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2014년에는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대캄보디아 외국인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원조 자금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경제의 고성장 기초가 이어질 것임.

그림 6. 캄보디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2008~1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9) 2015년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는 해로 ASEAN 국가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캄보디아 무역수지는 -13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순수출이 GDP 대비 -9.1%를 차지하는 등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음.
- 그 밖에도 2013년 캄보디아 정부는 대외원조 및 차관을 통해 GDP 대비 5.1%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감소하고자 목표를 세웠으나 2013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고무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며,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쌀 생산성 증대,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음.

- 농업 분야는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인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중 제1대 목표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생산후 처리 및 가공 시설이 부족하여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확충을 통한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이 필요함.

■ 섬유봉제업의 경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급증하여 외국계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해결이 요구됨.

- 2012년 갭(Gap), 리바이스(Levi's) 등의 상품을 생산하는 봉제공장이 파업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싱가포르계 SL Garment Processing 봉제공장의 노동자 약 5,000여 명이 파업을 단행하는 등 최근 외국계 기업 공장근로자들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온 가운데 2013년 4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바 단기적으로는 파업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안보다 높은 금액의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파업 관련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음.
- 봉제공장의 파업으로 인해 물량공급 및 해외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해당 산업의 투자유치에 적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및 외국계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등 섬유봉제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가 남아 있음.

■ 나아가 다양한 제조업종 발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차기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함.

-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봉제품이 주로 유럽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가 우려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 및 수출대상국 다각화가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 캄보디아 경제는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으며, 제조업 중 섬유봉제업에 치우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차기 주력업종이 발굴되어야 함.

- 최근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분야 등에 대해 일본 등 선진국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제조업종의 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캄보디아는 2015년까지 400만~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

- 2013년 캄보디아는 관광 분야 경쟁력에서 라오스와 미얀마를 제외한 ASEAN 8개국 중 최하위이자 총 140개국 중 106위를 차지하였으며,¹⁰⁾ 특별히 교통 등 관광 인프라 정비 및 관광정책 개발이 시급함.
 - o 관광 인프라 분야는 132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관광 정책 분야에서도 128위로 최하위권임.

나. 시사점

■ 캄보디아 경제의 고성장기조와 더불어 2012년 12월 한국정부가 대캄보디아 중점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발표함에 따라 농업 등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주요 분야이자 한국정부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양자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캄보디아 중점협력 분야로 농촌·농업 개발,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보건의료 향상 등 4개 분야가 지정됨.
-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인 농업의 발전이 캄보디아 고성장의 주요 배경인바,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원조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나아가 캄보디아 경제의 주요 분야와 중점협력 분야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향후 해당 분야 내 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 캄보디아 경제규모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지역 개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활발히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캄보디아 경제의 고성장 기조와 중국 및 주요 ASEAN 국가들의 임금상승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됨.

-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빠른 산업발전을 이루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아짐.
- 뿐만 아니라 2013년 주요 ASEAN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년대비 약 44%, 태국이 약 35%, 베트남이 약 17%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¹¹⁾ 차기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섬유봉제공장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 61달러에서 75달러로 약 23%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베트남 월 최저임금인 79~113달러와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저임노동력을 목적으로 캄

10) Blanke *et al.*(2013).

11) 이재호외(2013).

보디아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압박에 따른 상황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캄보디아 내 봉제공장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함.
- 또한 전력, 교통 등 산업 인프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점과 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 내 최대투자국인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이전 투자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저임노동력 및 현지시장 진출 등 세분화되고 명확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보다 다각화된 업종에 투자해야 할 것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부동산 및 건설업에 집중되었으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실패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투자가 위축되기도 함.
 - 대표적 사례로 부산저축은행이 프놈펜 신도시인 캄코시티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나 부실 투자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섬유봉제업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바이오에탄올을 비롯한 농업분야 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업종이 다각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이재호·신민규. 2013.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인상 원인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7-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PIA 캄보디아센터. 2013. 『캄보디아 농업기술정보지』, 4월호, KOPIA 캄보디아센터.
- Asia Development Bank. 201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Asia's Energy Challenge*.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ww.imf.org/external/data.htm (accessed April 24, 2013)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3. "Securing Cambodia's Future: Indicators, Prospects and Policy Priorities." Cambodia Outlook Conference. (February 20)
- Phnom Penh Post. 2013a. "South Korea Leads Asia's Big Three as Cambodia's Leading Investor." (January 31)
- _____. 2013b. "Tourism Surges in Cambodia." (February 26)
- Blanke, Jennifer and Chiesa, Thea. 2013.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3*. World Economic Forum.